



## 1. 제약/바이오 – 주간 제약업종 지수 현황

- ▶ 지난 한주간(8월 1일~8월 7일) 제약업종 지수는 전주대비 3.6% 상승하였고 KOSPI 수익률대비 3.4%pt 상회
- ▶ 주간 주가 수익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높은 13.7%, 휴젤이 가장 낮은 -0.8%를 기록
- ▶ 관심종목으로는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를 추천함

## 2. 산업관련 주요 이슈

- ▶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새 국면 (<https://bit.ly/2M0b1IC>)
  -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논란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 상장 주관사들을 대상으로 감리를 진행할 계획
  -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면한 최대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이라며 반등을 꾀할 것으로 전망
- ▶ 김동연-이재용 회동 효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3조원 회복 (<https://bit.ly/2MrSRWj>)
  - 분식회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압박을 가한 정부가 삼성그룹과 만나 일부 규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
  - 미국 시장 판로 확대 전망에 3공장 본격 가동으로 겹호재를 맞아 시가총액 3조원 이상 회복
- ▶ 대웅제약, FDA에 나보타 보완자료 제출 (<https://bit.ly/2OMBscf>)
  - 지난 2일 나보타의 미국 시판허가를 위한 보완자료를 미국 식품의약국(FDA)에 제출하고 심사 재개를 신청
  - 지난 5월 FDA는 CRL을 통해 나보타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바 있음

제약/바이오 커버리지 업체별 주간 주가 변동

기업	시가총액 (십억원)	주가 (pt, 원)	주가 Performance (%)					
			1D	1W	1M	3M	6M	YTD
KOSPI	1,486,204	2,300	0.6	0.2	1.2	-6.6	-4.0	-6.8
제약/바이오	155,081	14,289	1.1	3.6	-4.6	-2.3	-6.3	-0.1
셀트리온	34,421	274,500	0.2	1.1	-5.2	9.8	7.2	24.2
삼성바이오로직스	28,054	424,000	6.5	13.7	3.4	17.9	5.1	14.3
셀트리온헬스케어	12,731	90,600	0.1	-0.8	-13.0	9.8	-19.0	-16.6
한미약품	5,152	452,500	0.0	6.6	3.8	1.3	-17.0	-22.5
유한양행	2,784	228,000	1.3	2.2	4.1	0.7	5.1	4.1
메디톡스	4,129	730,000	0.8	1.7	-11.0	9.3	21.9	50.6
휴젤	2,064	473,500	-0.6	-0.8	-13.6	-1.3	-12.3	-15.4
대웅제약	2,225	192,000	0.5	4.9	-6.8	9.4	19.6	16.7
SK케미칼	1,031	89,000	-1.1	-0.8	-5.1	-11.4	-10.3	-16.3
동아에스티	857	101,500	0.5	6.1	12.5	1.6	-6.9	1.9

자료 SK증권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

## 3. 국내 제약/바이오 뉴스 (2018.07.25 ~ 2018.07.31)

- ▶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새 국면 (<https://bit.ly/2M0b1IC>)
  -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논란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 상장 주관사들을 대상으로 감리를 진행할 계획
  -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면한 최대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이라며 반등을 꾀할 것으로 전망
- ▶ 김동연-이재용 회동 효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3 조원 회복 (<https://bit.ly/2MrSRWj>)
  - 분식회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압박을 가한 정부가 삼성그룹과 만나 일부 규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
  - 미국 시장 판로 확대 전망에 3 공장 본격 가동으로 겹호재를 맞아 시가총액 3 조원 이상 회복
- ▶ 2 차 발사르탄 판매중지 (<https://bitly/2KwCXbu>)
  - 국내 원료의약품 수입업체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
  - 처방 중단에 따른 제약업체들의 손실 규모도 연간 450 억원 가량 확대
- ▶ 대웅제약, FDA에 나보타 보완자료 제출 (<https://bit.ly/2OMBscf>)
  - 지난 2 일 나보타의 미국 시판허가를 위한 보완자료를 미국 식품의약국(FDA)에 제출하고 심사 재개를 신청
  - 지난 5 월 FDA는 CRL을 통해 나보타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바 있음
- ▶ 셀트리온 '허쥬마' 허셉틴 시밀러 최초 호주 허가 (<https://bitly/2KrE8su>)
  - 트라스트주맙 바이오시밀러 중 최초로 호주에서 판매 허가를 받아
  -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허쥬마의 호주 유통 방안을 협의 중

## 4. 글로벌 제약/바이오 뉴스 (2018.07.25 ~ 2018.07.31)

- ▶ 일라이 릴리는 동물 건강 사업 부문에 대한 스피노프(spin-off) 결정 (<https://bit.ly/2ncPnMd>)
  - 동물 건강 사업 부문인 Elanco에 대한 IPO를 추진하고 있음
  - 일라이 릴리는 Elanco에 대한 지분율 20% 미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
- ▶ 에자이의 렌비마 상반기 1 억 6 백만 달러의 매출액 달성 (<https://bit.ly/2LRE5Ma>)
  - 신장암 환자 대상으로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매출액이 42.8%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
  - 매출액의 절반은 미국에서 발생했음
- ▶ 에볼루스 "보툴리눔제제 나보타 내년 봄 미국 출시" (<https://bit.ly/2OMhOxm>)
  -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내년 상반기 나보타의 미국 출시 계획을 공식화했음
  - 유럽과 캐나다 보건당국의 파트너사(대웅제약) DWP-450 제조시설 점검이 종료됐음

### 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

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

▶ 테바 2 분기 실적 양호 (<https://bit.ly/2n5YbDD>)

- Coxapone 과 새롭게 출시된 약품 Austedo 의 판매 호조 나타냄
- Mylan 이 약품 가격을 내린다고 해도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

▶ 바이엘의 피부 ETC 사업 부문 매각 (<https://bit.ly/2OytXFL>)

- Leo Pharma 가 인수했으며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음
- 바이엘은 OTC 피부 사업부문 프랜차이즈에 포함된 Bepanthen 과 Canesten 치료제는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함

## 5. 주요 공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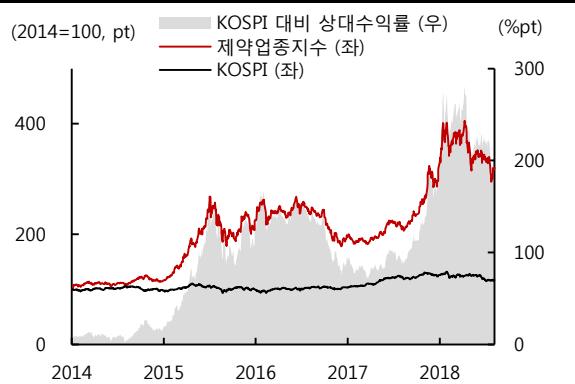
▶ 한미약품 – 2 분기 실적

- 매출액 2,413 억원(+8.3% yoy), 영업이익 200 억원(-7.4% yoy), 순이익 144 억원(+19.2% yoy)

▶ 대웅제약 – 2 분기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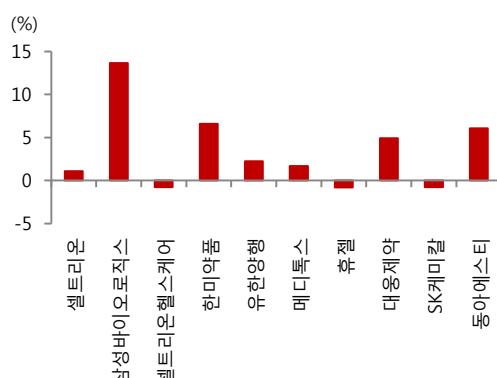
- 매출액 2,382 억원 (+7.1% yoy), 영업이익 100 억원 (-28.3% yoy), 순이익 77 억원 (-43.8% yoy)

제약/바이오 KOSPI 대비 업종 지수



자료: SK 증권

커버리지 업체별 주간 주가 수익률



자료: SK 증권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# SK Pharma Weekl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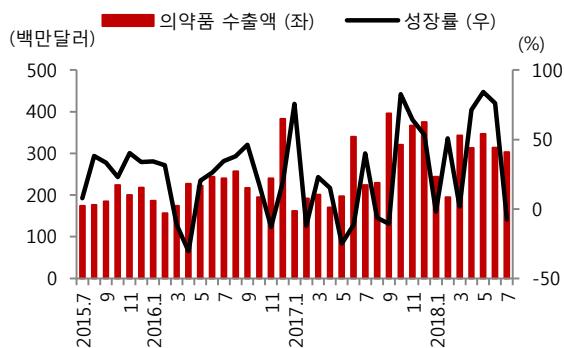
제약-바이오. 이달미, 3773-9952

R.A. 이소중, 3773-9953

달미약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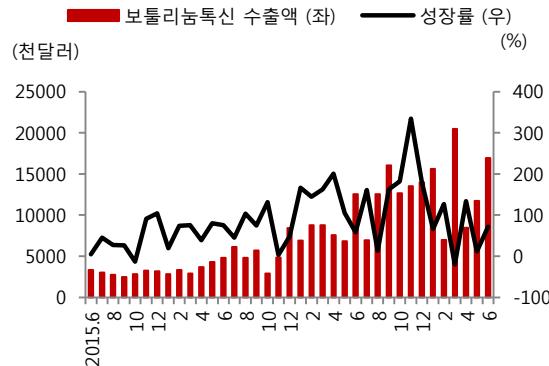


## 국내 의약품 수출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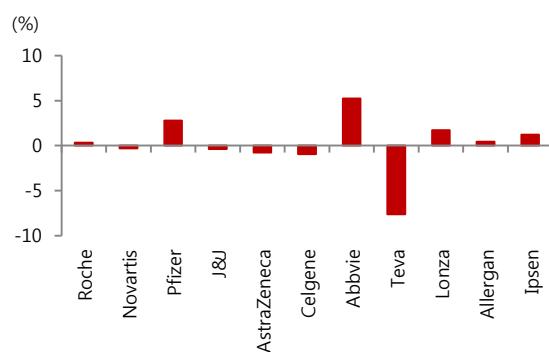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SK 증권

## 보툴리눔톡신 수출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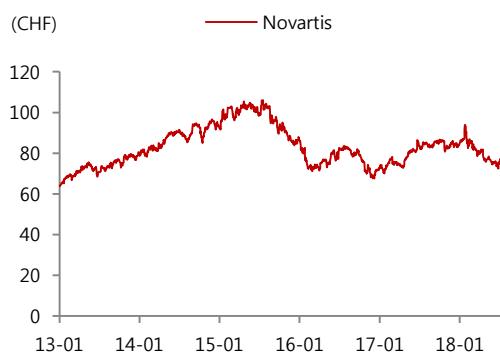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SK 증권

## 글로벌 업체별 주간 주가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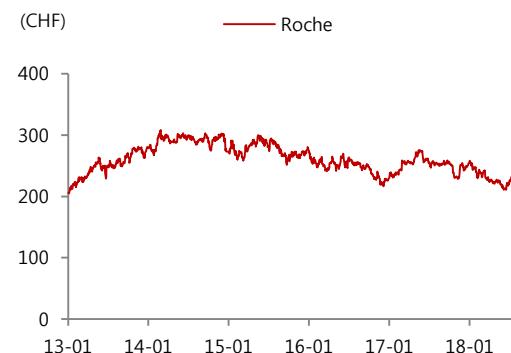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## Novartis의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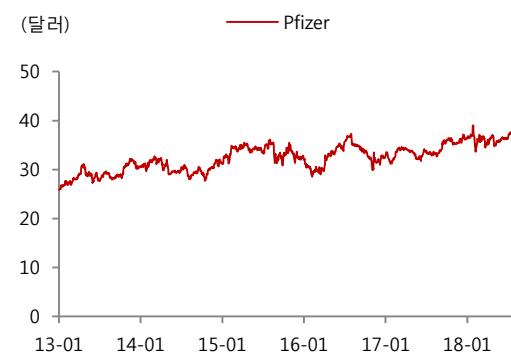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## Roche의 주가추이


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## Pfizer의 주가추이


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##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

# SK Pharma Weekl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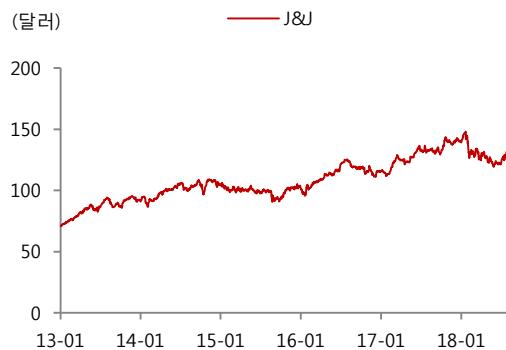
제약-바이오. 이달미, 3773-9952

R.A. 이소중, 3773-9953

달미약국



## J&J의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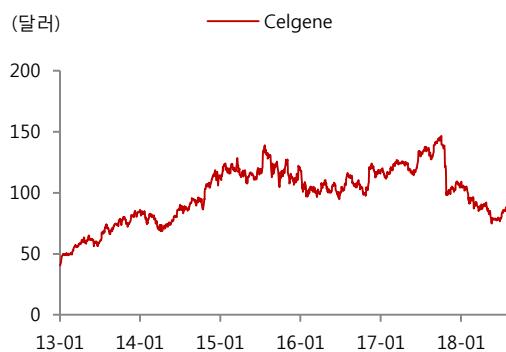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## AstraZeneca의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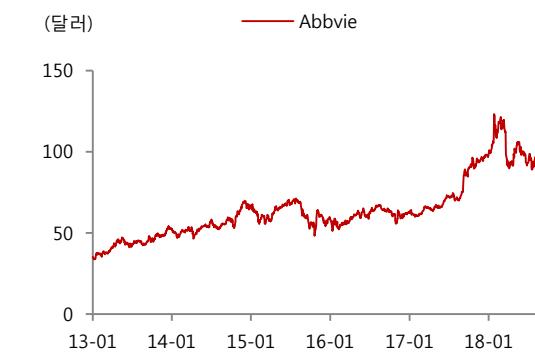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## Celgene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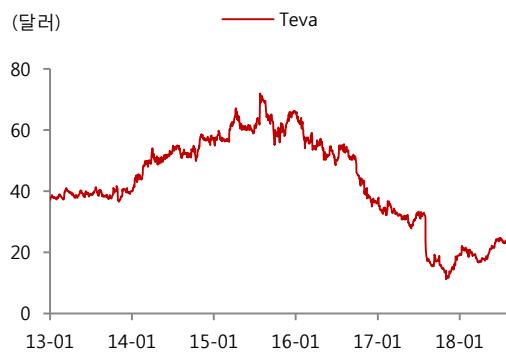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## AbbVie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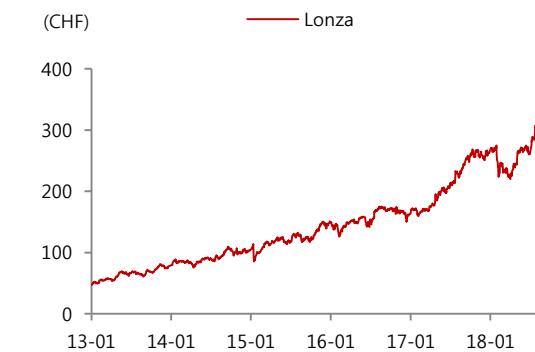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## Teva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## Lonza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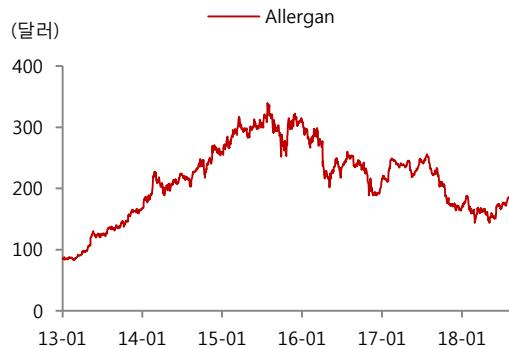
### 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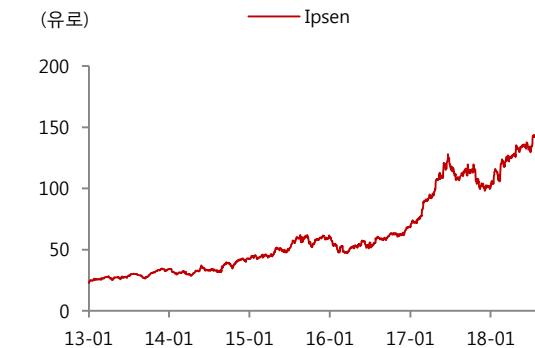


## Allergan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## Ipsen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### 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